

晋州 矗石樓 創建考

麗末鮮初의 樓閣經營

朴 敬 源

矗石樓는 古都 晋州의 상징이며 嶺南의 名勝으로 이름이 높아서 그來 歷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朝鮮初 太宗朝의 名相 河崙은 晋州人으로 그가 지은 矗石樓記에

「……樓는 龍頭寺 南쪽 돌벼랑 위에 있는데 내가 少年시절에 여러번 올랐던 곳이다.……樓의 이름은 淡菴 白先生이 江中の 돌이 뽕죽 뽕죽 하다 하여 矗石樓라 하였다.……樓는 金公이 처음 짓고 安常軒이 再建하였는데 모두 科擧에 壯元한 분들이므로 壯元樓라고 부르기도 한다.……」하였다.

「……樓在龍頭寺南石崖之上予昔少年登望者屢矣……其名樓之義則淡菴 白先生曰江之中有石矗矗故樓曰矗石……始手於金公而再成於安常軒皆狀元也故又有狀元之名……」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 晋州牧 樓亭

이 樓記가 矗石樓의 沿革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史料인데 여기에서 河崙은 자기가 少年시절에 이미 이 樓가 있었고 그것은 壯元及第한 「金公」이 創建한 것을 安常軒이 再建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矗石城(晋陽城)의 修築에 대하여도 같은 河崙의 城門記에

「……내가 總角시절에 여기에 유학하면서 매양 허물어진 城의 옛터를 보았으나 그 年代를 알 수 없었고 古老들에게 물어도 또한 증빙할 수 없었다.……내가 장성하여 벼슬에 나아간지 一〇여년 이래로 海寇가 해마다 심하였다.……己未年(高麗 禡王 五、一三七九)가을 지금 知密直 襄公이 康州(晋州)에 來鎮함에 牧使에게 移牒하여 城을 다시 修築하게 하고 參佐를 보내 工役을 감독 하였다.……城을 石築으로 改修하였으나 工事が 半도 되기전에 海寇에게 함락 되었다.……海寇가 물러간 뒤 에 牧使 金公이 州의 城을 修築해야겠다하여 장정들에게 일일을 고르게 시키고 몸소 公사를 감독하여 며칠 안되어 畢役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 晋州收 城郭

河崙은 築城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술하고 끝으로 牧使 金公의 이름이 仲光임을 밝혔다.

이와같이 麗末 矗石樓를 創建한 사람이 牧使 金公인데다가 矗石城을 修築한 사람 또한 牧使 金公(仲光)으로 시대와 姓이 같기 때문에 두 金公이 같은 사람으로 混同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宣祖朝 河受一은 그의 矗石樓 重修記略에서 「……矗石樓는 高麗때에 金公 仲光이 城을 처음 쌓면서 樓를 지었다……」

라고 속단하게 되었고 이후 이것이 定說로 되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矗石晋陽之名樓也在麗朝金公仲光與別駕李思忠始城而作之厥後連爲海寇 焚蕩廢興無常至弘治四年辛亥慶候統與判官吳致仁又重修今九十有三載歲 月既多棟折柱斲不克以居由是凡大賓旅大燕遊常寓于客舍然而歷累侯咸以 時屈莫能舉及至我申侯與方伯柳公謀新斯樓克恢復規時萬曆十二年春二月 也申侯西原人名點字聖與判官金公元龍相協力以成

晋陽誌 卷一 館宇

위의 一覽表에서 보듯이 이 때의 重修가 네번째로 壬辰兵火에 불탄

그建物이며, 지난번 六·二五 事變에 희생된 樓는 英祖二八年(一七五三) 壬亂後 두번째로 重修한 것이다.

事變後 晋州市民들의 政성으로 一九六〇年 비교적 빠른 時日에 樓가 再建되어 그 옛모습을 다시 보게된 것은 卞 多幸한 일이었다. 現在의 樓는 原建物の 實測圖에 의하여 原形을 충실히 復原한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이 복구사업에 다소 관여 하였던 筆者는 이 樓의沿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되어 그때마다 단편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있었다 (註一).

그리하여 臺石樓의 創建年代와 經緯가 차츰 밝혀지게 되었는데 동시에 우리나라 各地方의 이름난 樓閣들이 처음에는 佛敎寺院과 깊은 관련에서 建立되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筆者는 여기에서 우선 臺石樓創建의 經緯를 밝히고 麗末以來의 樓閣經營에도 약간言及하여 斯界의 참고에 이바지 하고저 한다.

臺石樓의 創建

臺石樓는 禡王 五年(一三七九) 牧使 金仲光이 晋陽城을 石城으로 改修하면서 創建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密陽嶺南樓記에서 볼 수 있다.

嶺南樓는 高麗 恭愍王一四年(一三六五)에 密陽郡守 金溱가 再建하고 손수 樓記를 지은 것인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乙巳年 봄에 내가 나와서 密陽郡守가 되어 남은 嶺南樓를 改創하려고 老匠 한사람을 晋陽에 보내서 臺石樓의 도본을 떠 오게 하였다……」

嶺南樓

「在客館東邱古嶺南寺之小樓寺廢至元。(正)乙巳金溱爲知郡因舊改創因以寺名名之……」

「高麗金溱記 密城在慶尙爲名區而其解宇東有樓曰嶺南……乙巳之春予出爲宰……思欲革舊悉皆撤去難其工匠咨於郡人僉曰有郡奴素稱良匠老且病難以執役猶可馭而指授余乃使吏致之語以其故令遣晋陽使圖臺石之制……」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六 密陽郡護府 樓亭

여기에 至元乙巳年이라 하였으나 至元에는 乙巳年이 없고 또 金溱의 經歷上으로도 至正乙巳年(恭愍王一四年 一三六五)의 誤記인듯하므로 여기에 바로 잡아 둔다. 어쨌든 이때에는 이미 臺石樓가 세워져서 그들이 嶺南지방에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추측 되는데 牧使 金仲光이 晋陽城을 修築한 것은 이보다 一五年 뒤에 있었던 일이다.

또 河嶺의 科擧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것도 바로 嶺南樓를 再建한 그해이니 臺石樓는 그 이전 즉 河嶺의 소년시절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樓는 牧使 金仲光의 築城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壯元及第한 金公(金仲光은 壯元及第한 사람이 아니다)에 의하여 創建되고 安常軒 再建 白淡菴이 命名한 것이다.

여기에 淡菴 白先生은 麗末에 文名이 높았던 白文寶(?—一三七四)임이 틀림 없었다.

白文寶는 忠肅王때 文科에 及第하여 春秋檢閱 右常侍를 거쳐 恭愍王 때에는 大君 福의 師傅가 되고 官이 政堂文學에 이르러 稷山君으로 봉해졌다. 性品이 廉潔하며 文章에 뛰어난 분으로 그의 號가 澹菴(澹菴)이다.

淡菴 白文寶가 臺石樓라고 命名한 그 建物은 金公이 創建한 것이 아니고 安常軒이 再建한 것임은 위에서 자연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安常軒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 晋州牧에

「名宦 高麗 安震爲通判」

으로 보이는 安震의 號인데 그는 忠宣王五年(一一三三) 文科에 壯元하

고 忠肅王五年(一三一八) 藝文檢閱로서 元의 制科에도 及第한 秀才이다.

그는 忠穆王元年 書筵官이 되고 安山君으로 봉해져서 三朝實錄(忠烈 忠宣 忠肅)의 편찬에도 참여 하였으며 뒤에 政堂文學까지 되었던 사람 이다.

그러나 그와 晉州와의 인연은 앞의 晉州通判의 經歷 밖에는 알려진 것 이 없었다.

通判은 府使나 牧使의 보좌관인 判官을 高麗 睿宗때 개칭한 地方官이 다. 晉州通判 安震은 이름이 後世에 전할 정도로 名官이었던 듯하나 가 령 그때에 礪石樓를 再建하였다 하더라도 위에 牧使가 임연히 있는데, 通判인 安震이 再建하였다고 할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러면 安常軒이 礪石樓를 再建하였다는 것은 언제인가? 이 문제는 뜻밖에 엉뚱한 데서 쉽게 풀리게 되었다.

安震이 지은 陝川 涵碧樓記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는 것이다. 「丁巳年(忠肅 四年·一三一七) 가을에 中國의 科擧에 應試하러 가면 서 처음으로 平壤의 永明寺 浮碧樓를 보고 五年 뒤에 晉州牧使로 나와 서 龍頭寺의 壯元樓에 올랐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平生에 본바 南北의 뛰어난 경치는 이 두樓보다 나은 것이 없으리라 하였다……」

涵碧樓 在南江石崖上「安震記……丁巳秋將應擧中朝道過平壤初見永明 寺浮碧樓其後五年迺出倅晉陽又登龍頭寺壯元樓自以爲平生所見南北絕景 無以過此二樓者也……」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 陝川郡 樓亭

즉 安震은 丁巳年 가을 元의 科擧에 應試한 五年뒤에 (忠肅九年·一 三二二) 晉州牧使로 나온 사실이 여기에서 밝혀진다.

科擧에 壯元及第한 뒤로 通判을 거쳐서 一〇年만에 牧使로 晉州에 다 시 오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安震의 礪石樓 再建은 그의 任期中 즉 忠肅一〇年頃(一三二二

三)으로 봐서 거의 틀림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직 이름조차 없는 龍頭寺의 小樓였던 것이 安震의 再建 으로 「壯元樓」라는 別名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에 앞서 언제 누가 創建하였느냐 하는 것인데 지 금까지 알려진 바는 高麗時代에 科擧에 壯元한 金公이라고만 하였으나 그 역시 晉州牧使를 지낸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高麗史에 의하면 科擧가 실시된 光宗九年 이후 安震의 再建까지 三五〇年 사이에 壯元及第한 金氏는 모두 二六名인데 이중에서 晉州牧使의 經歷이 알려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三五〇年이란 全期間을 대상 삼을 것이 아니라 범 위를 좀더 좁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安震의 再建時 당초의 건물은 이미 없어졌던 것으로 河崙의 樓記에도 분명히 「再成於安常軒皆壯元也」라 하였고 安震도 그가 通判으로 晉州에 처음 왔을 때에 樓를 보았다는 아무런 말이 없으니 당시에는 礪石樓를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 되는 것이다.

여기에 初創 礪石樓가 없어진 下限을 示唆하는 資料가 하나 있으니 麗末에 文名이 높았던 及菴 閔思平(一二九五—一三五九)의 七言絕句다.

晉陽佳麗曾經處 歌管樓臺頻入夢

且聞如今無地主 滿江秋月屬何人

「晉陽은 아름다워라 내 일찌기 지난 곳 노래하던 그 樓臺 꿈 속에 자 주드네 못노라 지금은 땅 주인이 없다는데 江물에 뜬 가을 달은 누 구에게 맡겼는가

이 詩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晉州牧 題詠條에 收錄되어 있는데 閔思平 은 이 詩에서 樓臺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적 하지는 않았으나 河崙은 樓記에서

「아름다운 題詠으로는……及菴 閔先生 같은 분이 있다」라고 하여 이

것이 蘆石樓를 두고 읊은 詩임을 分明이 밝혔다.

이때만 하여도 아직 樓의 이름이 없을 때이지만 晉州에서 滿江秋月의 主人格은 蘆石樓를 두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閔思平은 꿈에까지 그리던 蘆石樓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主人(樓) 없는 滿江秋月의 쓸쓸한 風景을 생각하며 이 詩로 마음을 달랜 것이리라.

安震이 蘆石樓를 再建한 것은 閔思平이 二九세 경이며 이 建物이 倭寇에 의하여 불탄 것은 思平이 죽은 二〇年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詩는 思平 二九세 이전의 작품이며 따라서 初創建物은 思平이 二九세 이전의 어느 때까지는 엄연히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또 思平이 樓臺에 올라 風流를 즐겼다면 그의 나이가 적어도 一

七·八세는 넘었었을 터이니 創建한 樓는 閔思平의 나이 一七·八세 二九세까지의 약 一〇年 동안(一三二二—一三三三)에 없어진 것으로

짐작 된다.

이와같이 蘆石樓와 閔思平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蘆石樓의 創建年代도 훨씬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樓閣이란 建物은 아무런 사고 없이 그 壽命을 다 하더라도 構造上 一〇〇年을 제대로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다.

蘆石樓 八〇〇年の 歷史에 八次의 重建을 거듭하였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初創建物이 남아있었다고 짐작되는 一三二三年頃에서 약 一〇〇年을 소급하여 高宗 二年(一一二四) 이후에 壯元及第한 金氏로 범위를 좁혀도 대상자가 七名이나 되며 그중 晉州牧使의 經歷이 傳하여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중 高宗 六年(一一二八) 壯元한 金仲龍이 高麗史列傳에 보이는 金之岱와 同一人이라는 것과 그가 晉州牧使를 지냈다는 사실을 우연

히 알게 되었다.

日刊紙에 쓴 筆者의 글을 읽은 淸道 金氏 한 분이 蘆石樓를 創建하였다는 壯元한 金牧使가 바로 그들의 始祖 英憲公 金之岱가 아닌가라고

문의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金氏 門中에서 刊行한 「英憲公實記」에 「나아가 晉州牧을 다스리다 (出知晉州牧)」라고 기록되어 있음도 알려 주셨다(註二).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八 尙州牧 名宦條에 보인다.

「名宦(高麗) 崔滋 康王 壬申擢進士 第例補尙州司錄 參軍事兼掌記人 爲國學學諭 後又出牧 金之岱贈詩云……」

이 詩는 東文選에 그 全文이 收錄되어 있다.

寄尙州牧伯崔學士滋 金之岱

去歲江樓餞我行 今年公亦到黃堂
曾爲管記顏如玉 復作遨頭髮未霜

洛邑溪山雖洞府 晉陽風月亦仙鄉
兩州歸路閒何許 一寸離懷久已傷

欲把琴書尋舊要 況看簾幙報新涼
嗟公虛負中秋約 更約重陽飲菊香

東文選 卷一八 七言排律

이 詩에서 「지난해 江樓에서 (晉州로) 떠나는 나를 전송 하더니 올해는 公道 또한 黃堂(太守)이 되었구려……洛邑(尙州)의 溪山이 좋다

하나 晉陽의 風月 또한 仙境이니라……아아 公이 中秋의 약속을 어겼으니 이다음 重陽에는 菊花酒마시기를 期約하세」라는 句節이 주목할 만하다.

즉 두 사람이 晉州와 尙州의 太守로 나와서 中秋에 晉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다시 重陽에 菊花酒나 마시자는 友情

어린 초대의 詩다.

이때가 어느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金之岱는 高宗二七年(一二四〇) 五一세에 全羅道按察使가 되었고 崔滋는 四年後 高宗三一年(甲辰)에 尙州를 떠난 것이 補閑集 卷中에 「予於甲辰春自尙州罷任過郵亭……」으로 보인다.

즉 金之岱는 前年에 晉州에 와서 그해 年末에 떠났고 崔滋는 그해에 와서 四年 뒤에 떠났으니 崔滋의 任期등으로 미루어 두사람이 다같이 牧使로 在任한 것은 바로 高宗二十七年庚子(一二四〇)이거나 그 앞의 己亥年의 兩年間으로 추정 되는 것이다.

따라서 矗石樓의 創建年代도 이 전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여기에서 는 일단 高宗二七年(一二四〇)으로 잡아 둔다.

여기에서 金之岱의 行績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高麗史 列傳에 의 하면 金之岱(明宗三〇—元宗七·一一九〇—一二六六)의 初名은 仲龍 淸道人으로 風姿가 魁偉하며 큰 뜻을 품고 學問에 힘써 글을 잘 하였다. 高宗四年 契丹의 난리에 太學의 學生으로 父親을 대신하여 江東의 戰爭에 나아갔다.

그 때 모든 兵士들은 방패에 부적으로 피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之岱는 홀로 詩를 지어 방패에 썼다.

나라의 걱정은 臣下의 걱정이오

아버이의 근심은 자식의 근심이라

아버이 대신 나라에 보답하여

忠과 孝를 아울러 닦으리라

國患臣之患 親憂子所憂

代親如報國 忠孝可雙修

元帥 趙冲이 군사를 점점하다가 이것을 보고 놀라 內廂에 불러들여 重用하였다.

이듬해 전쟁에서 개신한 趙冲이 知貢擧가 되어 之岱를 壯元으로 拔擢

하였다. (年三一歲) 全州司錄으로 倒補되었다가 寶文閣校勘을 지낸 뒤에 全羅道按察使로 승진하였다.

元宗初 七一歲에 政堂文學 吏部尙書로 除授되었으나 未幾에 上章請老 하여 守太傳中書侍郎平章事로 致仕하였다.

英憲公實記에는 「高宗二十七年庚子 陞爲全羅道按察使」라 하였으니 그가 寶文閣으로 들어온 뒤의 十餘年間の 經歷은 여전히 알 길이 없으나 按察使가 되기 직전에 晉州牧使를 지낸 사실이 이상과 같이 밝혀진 것이다.

다만 高宗時代에 壯元及第한 金氏는 金之岱 이외에도 몇사람이 더 있으나 晉州牧使를 지냈다는 經歷이 뚜렷한 사람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矗石樓의 創建者를 金之岱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十中八九는 金之岱로 指目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 한다.

矗石樓의沿革

金之岱가 이때에 創建한 矗石樓는 八三年 뒤 忠肅一〇年(一一三三) 尙軒 安震에 의하여 再建되어 壯元樓라는 別名으로 불리게 된 것이니 建物の 壽名으로 따지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朝鮮朝에 내려와서 第三次 重建 이후의 沿革은 각종 文獻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矗石樓 沿革

高麗時代 龍頭寺 小樓

高宗 二七年(一二四〇) 牧使 金之岱 創建

忠肅王 一〇年(一一三三) 牧使 安震 再建(別名 壯元樓)

高麗末(一一三三—一一三七四) 淡菴白文室寶矗石樓 命名

禡王 六年(一一三八〇) 倭寇에 의하여 燒失

朝鮮 太宗 一三年(一四一三) 牧使 權衷 三建

太宗 河崙 樓記

成宗 二二年(一四九二) 牧使 慶祗 四建

宣祖 一七年(一五八四) 牧使 申黈 五建

宣祖 河受 一重修 記略

宣祖 二六年(一五九三) 倭亂으로 燒失

光海 一〇年(一六一八) 兵使 南以興 六建

顯宗 五年(一六六四) 重修

肅宗 九年(一六八三) 重修

肅宗 四五年(一七一九) 重修

英祖 二八年(一七五二) 牧使 安克孝 七建

一九五〇年 六二五事變으로 燒失

一九六〇年 八次再建

麗末 鮮初의 樓閣 經營

끝으로 麗末 鮮初의 樓閣 經營의 動機에 대하여 若干 言及하고자 한다. 蘆石樓의 創建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筆者는 이樓가 元來 龍頭寺라는 절에 따른 樓閣이었다고 추정하였다.

河崙의 樓記에는 「樓在龍頭寺南石崖之上」이라 하여 절과의 關係 位置를 明示하였고 「龍頭寺邑初所置……」라는 절과 邑과의 관계 및 樓의 復舊事業에서 邑인들이 그 일을 龍頭寺의 住持에게 主幹케 하였다는 것은 龍頭寺와 蘆石樓가 不可分의 關係에 있었음을 암시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河崙記……鄉之父老前判事姜順前司諫崔卜麟等議曰龍頭寺邑初所置蘆石樓一方勝景廢之久不能重新是吾鄉人之責也迺各出財使鄉僧奠香龍頭寺者端永幹其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 晉州牧 蘆石樓

이에 앞서 樓를 再建한 尙軒 安震은 陝川 涵碧樓記에서 「……出倅晉陽又登龍頭寺狀元樓……」 龍頭寺의 狀元樓라고 分明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晉州牧使로 있으면서 蘆石樓를 再建한 사람이 쓴 기록이니 이 이상 더 정확한 證言이 있을 수 없다 하겠다.

이뿐 아니라 이름난 樓閣들 중에는 寺院과 밀접한 關係를 가진 예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즉 密陽 嶺南樓는 예전에 嶺南寺의 小樓였는데 절은 없어지고 至正 乙巳年에 知郡 金漆가 樓를 改創하여 寺名에 따라 嶺南樓로 이름 지었던 것이다.

「嶺南樓在客館東即古嶺南寺之小樓寺廢至元(正)乙巳金漆爲知郡因舊改創因以寺名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廿六 密陽都護府

또 蔚山의 大和樓 역시 權近의 樓記에

「……新羅 때 처음으로 절을 北쪽 언덕에 짓고 大和(寺)라 하였으며 西南쪽으로 樓閣(大和樓)을 세웠다……」라고 하였다.

「大和樓 權近記……新羅之時始置寺于北崖之上曰大和西南起樓……」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廿一 蔚山郡 樓亭

平壤의 浮碧樓도 예외가 아니다.

東國輿地勝覽에 「浮碧樓는 乙密臺 아래 永明寺 東쪽에 있다」라고만 하였으나 前記 常軒 安震은 陝川 涵碧樓記에서 「初見永明寺浮碧樓」라 하였다.

浮碧樓의 沿革에 대하여는 더 소상한 기록이 高麗 李仁老(一一五二—一二二〇)의 破閑集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浮碧樓는 처음에 永明寺의 南軒으로 본래 興上人이 創建하였으며 祖父 李顥(一〇五〇—一一一〇)가 浮碧寮라고 命名하였다」

以上的 例로 미루어 본다면 寺院의 境치 좋은 곳에 樓閣을 세우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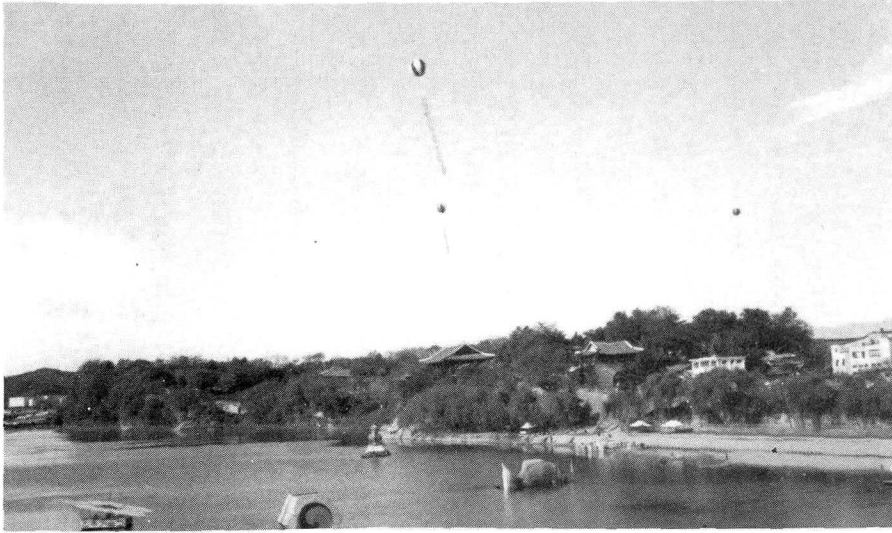


사진 1 죽석루의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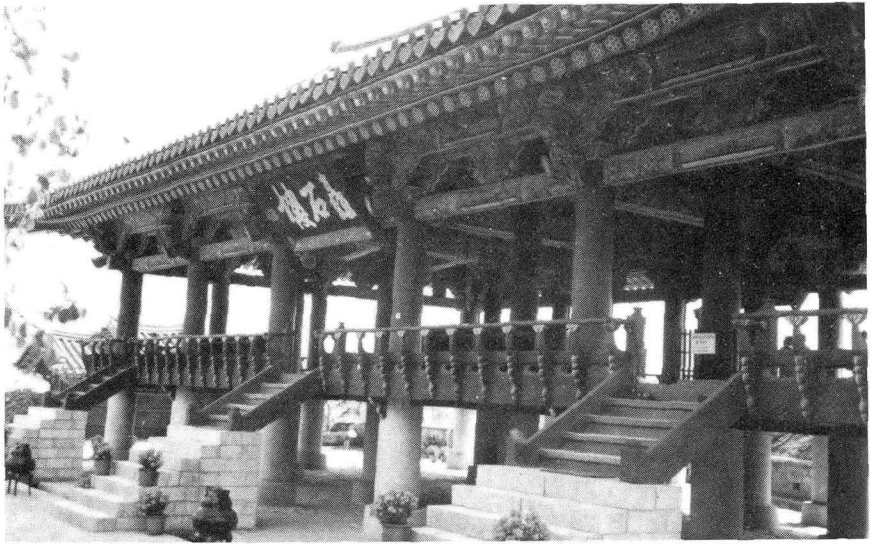


사진 2 죽석루



사진 3 蠡石樓重修記

것은 그 기원이 新羅時代에 까지 소급할 것으로 짐작되며 高麗時代에 내려와서도 계속 성행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山水 좋은 勝景에 樓閣을 세우는 것도 일찍이 新羅末부터의 전통이었던 것 같으나 오늘까지 전하는 것이 흔하지 않아서 孤雲 崔致遠이 創建하였다는 咸陽 學士樓가 그 뚜렷한 예가 아닌가 싶다.

學士樓在客館西偏崔致遠爲太守時所登賞故名後爲倭兵所焚移邑時樓亦移構而仍名焉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一 咸陽郡 樓亭

이와같이 各處의 寺院이나 勝景에 樓閣을 經營하는 것은 新羅 이후 高麗時代에 내려오면서 성행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樓閣을 거점으로 儒佛이 同樂하면서 그 地方文化의 中心을 이루었던 것은, 그들이 남긴 많은 詩文들이 이를 증명한다. 高麗中葉까지의 樓閣經營은 주로 이러한 文化風土에서 계승되고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高麗王朝의 기반이 확립되고 地方行政의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地方의 行政中心地에는 여러가지 목적의 樓閣이 세워지게 된다.

官衙의 門樓, 客館의 東, 西樓(地形에 따라서는 南·北樓)나 州治의 勝景에 독립된 樓閣 建立이 차츰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麗末, 鮮初에 와서는 海寇에 대한 邊防이 強化되고 邑城의 修築이 활발해짐에 따라 上樓下關形式의 城門樓도 海防의 要衝에 세워지게 된다.

寧海 西樓 全州 鎮南樓 羅州 東樓 같은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經營된 樓閣이다.

高麗時代 樓閣의 性格은 鄭麟趾의 慶州 實賢樓記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도 있다.

「……高麗는 中葉 이후로 文官은 安逸에 빠지고 武官은 놀기를 즐겨 하여 樓台는 풍악과 노래 춤의 장소가 되고 꽃과 달을 구경하고 吟詠하는 자리가 되어 上下가 醉夢에서 깨어 있는 날이 없었다……」

「實賢樓在客館東 鄭麟趾記……高麗中葉以後文恬武嬉樓台爲管絃歌舞之場花月乎遊賞玩詠之席上下相忘於醉夢之中無有醒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廿一、慶州 樓亭

儒教를 지도정신으로 하여 새 王朝를 세운 鮮初의 士大夫들은 麗末에 頹落된 各處의 樓亭을 復舊 또는 新築하는데 적지 않은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 勝景의 樓亭들은 대다수가 이 시기에 建立 또는 再建된 것인데 이때에 寺院에 소속되었던 樓亭들이 절과의 인연을 끊고 독립된 樓亭으로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던 것 같다. 앞에서 예거한 平壤 浮碧樓 密陽 嶺南樓 및 蘆石樓 같은 이름난 樓閣들이 모두 그러한 본보기다. 「樓觀을 경영하는 것은 治者의 餘事에 불과하다. 그러나 一樓의 興廢는 可히 한 고을의 人心을 알 수 있고 한 고을 人心으로서 한 시대의 世道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餘事라 하여 소홀히 할 것인가……」

蘆石樓 河崙記樓觀之經營爲治者之餘事耳然一樓之興廢而一鄉之人心可知矣因一鄉之人心而一時之世道可知矣則亦豈可以餘事而少之哉……」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 晉州牧 樓亭

라고 한 河崙 蘆石樓記의 一節은 그대로 鮮初 士大夫들의 樓亭觀을 대변한 것이라 하겠다.

즉 治者는 治績의 象徴으로 또 地方의 士大夫들은 鄉土의 象徴으로서 樓亭의 經營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성행하였던 것이다.

또 鄉校가 지방에까지 보급됨에 따라 上樓下關式의 風化樓가 鄉校의 正門으로서 型式化하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 王朝가 무너지고 새 王朝가 일어나면서 그 指導精神이 바뀔에 따라 政治風土나 社會相이 樓閣이란 造形에도 예민하게 反映되는 것임을 뚜렷이 보여주는 듯 하다.

(註)

- 一、晉州 蘆石樓 創建考(一九七八·三) 續創建考(一九七·六) 釜山日報
- 二、增補譯鮮英憲公實記(一九六五) 清道金氏門中에서 傳하여 오던 것을 增補國譯한 등사본